

25만5000대…서구 계수교차로 교통량 최다

산월나들목·우석교차로 뒤이어
일곡교차로 작년비 23% 증가
시의유출입 교통량 2.12% 늘어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서구 계수교차로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지난해 9월 조사기관에 의뢰해 주요 교차로 55곳과 시의 유출입지점 23곳에 대한 영상촬영을 통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주요 교차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구 계수교차로로 25만5057대였다. 이어 산월 나들목 20만7934대, 우석교차로 20만4975대, 상무교차로 19만

6391대, 광주여대 사거리 18만1083대 등의 순이었다. 교통량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점은 북부순환로 개통(2018년 5월)에 따라 전년보다 22.9% 증가한 북구 일곡교차로(3만9667대)였다. 또 응용교차로(7만6571대, 11.0% 증가)와 북광산교차로(5만8223대, 18.9% 증가), 오선교차로(6만5864대, 10.4% 증가) 등은 2017년 5월 하남진곡산단로 전 구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만 농성 지하차도 경사완화 공사중인 농성광장은 주변 교통 우회로 인해 1월 11만1195대로 전년보다 12.1%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시와 주변 시·군을 연결하는 시의 유출입 교통량은 2.12% 증가했다. 반면 광주 시내 주요 교차로의 1일 교통량은 전년 대비 0.03% 감소했다. 시간대별로는 출근시(8~9시)는 0.10% 증가했으나, 퇴근시(18~19시)에는 1.24% 감소했다. 광주시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나들목 등 시의 유출입 구간 23곳의 하루 교통량은 79만7673대로 전년보다 2.12% 증가해 도시 광역화로 인한 인접 시·군을 통행하는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 유출입 교통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호남고속도로와 빛고을대교가 만나는 동림 나들목 연결로 교통량이 7만937대로

가장 많았으며, 서광주 나들목(6만7633대), 너릿재터널(5만7279대), 포충사입구(5만3210대) 등 순이었다. 이 밖에도 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 총 19개 구간에 대한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40.34km로 전년보다 1.01km 감소했으며, 교통신호 대기 및 지체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여행속도는 시속 26.62km로 전년보다 1.34km 감소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법정조사로 도시교통 및 광역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에도 제공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구, 광주도시공사·조선대 LINC+ 사업단과 업무협약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힘 모은다

광주시 남구가 구도심인 백운광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광주도시공사와 조선대 LINC+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식 및 도시재생 포럼이 진행된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광주도시공사와 조선대 LINC+ 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날 광주도시공사와 조선대 LINC+ 사업단과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기관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백운

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남구와 광주도시공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도시재생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지역주민과 상인, 청년 100인위원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되는 도시재생 관련 포럼이 이어진다. 남구 관계자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의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불어 꺼진 이 지역에 사람들이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고려인마을 교류·협력 1주년 간담회

희망2019나눔 성금도 전달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17일 고려인마을을 방문 교류·협력 1주년 기념 간담회 및 희망2019나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연구원은 지난해 사단법인 고려인마을동행위원회와 고려인의 권의 신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귀환 고려인 동포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인 정착 및 우호 증진, 고려인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주 고려인마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살아있는 역사마을’로 가꾸는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해 이날 고려인마을을 찾은 박성수 원장 등은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원 구성원들이 실시일반으로 모금한 ‘희망나눔 성금’을 고려인마을에 전달했다. 박성수 원장은 “항일독립투사 후손 고려인 동포들의 마을 공동체인 ‘고려인마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광주의 자산이라며 연구원과 함께 더욱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자치구 설 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21일부터 2월 6일까지…11개 42명 정비반 편성·운영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월 6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이번 특별 정비기간에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함께 불법현수막 특별정비를 위한 11개 반 42명의 정비반을 편성·운영한다. 정비반은 교통관문, 버스터미널, 철도역 주요도로, 전통시장 등 주요 지점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24일에는 남광주시장, 상무지구, 대남대로, 광주역, 송정역 등 5개 자치구 주요 지역에서 ‘설맞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및 캠페인’을 한다. 광주시는 시민참여 수거보상제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보조금 2억3000

만원을 자치구에 지원해 1년 365일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광주지방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택보양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광주시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은 “2019 광주 세계수원성원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사장, 경기장, 선수촌 등 구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월 10만원…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지급

올해부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받으며, 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모든 출산가정에 5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마더박스’를 나눠줄 예정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육·아동·출산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많이 달라진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한다. 아동돌봄지원사업 대상이 소득기준 150%(3인 가족 564만원)까지 확대되며, 시간제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한 시간당 9650원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기존 아이돌보미 850여 명 외에도 150명을 추가 양성해 돌봄서비스를 개선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유지) 등에 재원하고 있는 만3~5세 아동에게 월 2~3만원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제선 지능아동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경제선지능 아동 선별비 30만원이 제공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종합적인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 조기 정착 및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2년 내 만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가구당 200만원…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

광주시는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용 수동식 유모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1~2급 중증 뇌병변장애인과 척추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다. 올해는 1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총 2400만원을 지원하며, 내구연한 5년이 되는 2013년 이전에 지원받은 가정도 재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 보조기기사레관리센터의 상담과 평가를 거쳐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에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2018년까지 80여 명에게 지원해 장애아동의 이동을 도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최

광주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매주 2차례씩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20일 센터에 따르면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실(동구 동명로 67번길 29)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동명동 뉴딜·인쇄의 거리·조선대캠퍼스 내 주민 및 사업장 소유자 15명, 동구 내외 활동가 및 기획자, 창업 희망자 15명 등

4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박은진 공유를 위한 창조 대표, 민운기 인천스페이스비대표 등 전국 각지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매주 목·금요일, 모두 9차례의 이론교육 및 특별 실습 과정을 병행하며, 6번 이상 수강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선정해 소정의 상금도 수여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초중고 26개교 석면공사 현장 전수점검

광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중 자치구와 공동으로 관내 초·중·고 석면공사 현장을 전수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됐다.

전수점검은 방학기간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초·중·고 26개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월 말까지 실시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기준·법령 준수 여부, 감리원 상주 및 감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타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32억(평당 75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 010.3605.5000

